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최수철



소설가 스티븐슨은 우리가 밤에 꾸는 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밤새도록 환하게 불이 켜진 자그마한 ‘두뇌극장’에서 펼쳐지는 게 바로 꿈이다. 그 공연의 기획은 소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들의 작품이 너무도 생생하고 감동적이어서, 어느 문학 작품보다도 더 흥미진진하다.”

꿈은 재미있다. 그러나 또한 꿈은 영똥하고 무섭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삶에서 꿈처럼 날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신비와 불가사의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도 달리 없다. 물론 고대로부터 인류는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을 왜 꾸는 지 이해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 뇌는 깨어 있는데, 꿈이란 수면 중에 뇌의 움직임을 유연히 자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꿈의 해석을 통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행동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질적인 필요요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꿈과 관련된다. 연구 결과

에 따르면 꿈의 결핍이 마음의 병을 유발한다고 한다. 오로지 꿈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적 배출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꿈의 결핍은 꿈의 중요성을 무시할 때 생겨나는 자연스런 결과다.

나는 꿈을 꾸다, 고로 존재한다

꿈을 중요하게 하려면 밤에 잠자리를 잘 보살필 필요가 있다.

밤의 세계는 중요하다. 논갈이 가로등을 설치하자 이삭이 패고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동물원에서는 보안등 불빛으로 동물들이 수태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낮과 밤이 서로 잘 어울릴 때 비로소 우리의 하루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꿈이다.

관심을 가지고 대하고 보면 꿈은 실로 의미심장하다. 간혹 무의미해 보이는 꿈도 있지만, 그것은 밤의 심리 세계가 내보

내는 수수께끼를 해독할 만한 감각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의식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고, 그 메시지가 곧 꿈이다. 어떤 때에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불쾌한 꿈이 계속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꿈의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진실을 찾아 나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떤 꿈을

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기도 한다. 꿈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우호적으로만 경험되지 않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과 좀 더 친숙해지고 우리 내면에서 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 지금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나는 예술이 꿈과 무척 흡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갓가지 예술 장르의 작품들은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꿈을 경험하게 한다. 달리와 마그리트의 그림, 사티와 드뷔시의 음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꿈과 예술은 삶의 불가사의함과 신비로움을 드러내면서 그로부터 아름다움과 경건함을 불러일으킨다. 예술에 영혼의 정화 능력이 있듯이, 나는 꿈 또한 그러하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흔히 네 꿈을 뒤내고 묻는다.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무슨 꿈을 꾸었냐고 묻는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희망 어린 삶의 목표를 ‘꿈’이라고 하고, 밤에 겪는 환몽도 마찬가지로 ‘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어쩌면 우리 조상은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에서 좋은 꿈을 꾸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꿈의 그 두 가지 의미로 나 자신에게 낮게 되된다. ‘나는 꿈을 꾸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경찰, 치안 사각지대 그대로 둘 건가

광주시 서구 치평·쌍촌·화정동과 북구 용봉동에서 지난해 절도, 폭력, 강간·추행, 강도 등 5대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유흥가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심야시간대 유통인구가 많고, 원룸이 밀집돼 있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광주지역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살인 25건, 강도 128건, 강간·추행 691건, 절도 1만1572건, 폭력 1만1145건 등 모두 2만3561건에 달한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6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5622건, 광산 4998건, 동구 3449건, 남구 2606건 등이다.

동별로는 서구 치평동이 1131건, 쌍촌동 1057건, 북구 용봉동 995건, 화정동 909건으로, 하루 평균 2.5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유흥가와 원룸이 밀집해 있어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치안

사각지대임에도 치안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면적이 넓고 유통인구가 많은 취약지역에선 ‘맞춤형 치안대책’이 필수적이다. 지구대 및 파출소에 인력 증원은 물론이고 집중적인 순찰과 CC-TV 추가 설치 등 치안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광산경찰서가 지난 2009년 경찰관 30명 증원한 결과, 범죄발생 건수가 306건이나 줄어든 반면, 동부서는 경찰관 수를 13명 줄이자 범죄발생 건수가 171건이나 늘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구대별 지역 실정에 따라 파출소로 전환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전환한 경우 신고 5분 이내 현장 도착률과 범인 검거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은 이번 지역별 범죄현황을 토대로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주민 불안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시설농가 ‘4중고’ 정부 더이상 외면 안 된다

전남도대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기름값·자재값·인건비 등은 상승한 데 반해 생산량은 줄어드는 등 4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농가에 따르면 올 들어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기름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한 반면 일조량 감소에 따라 생산량은 크게 줄어 화훼, 토마토, 딸기 등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시름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다. 지난 2010년 1월 1일 890원이던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1월 1080원, 올 1월 1130원 등으로 20% 이상 올랐다. 농민들은 과거 연간 연비비로 5000만 원이던 총분했으나 현재는 1억 원 이상 들여야 농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종자와 포장재 가격 등 농자재값도 10% 정도 올랐으며, 추위로 구인난을 겪으면서 인건비도 10% 가량 덩달아 뛰었다.

여기다 계속된 추위로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농작물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그렇다고 물량 부족을 이유로 가격을 올려 받을 수도 없는 처지다. 그야말로 ‘올벼 겨저먹기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셈이다.

이는 농가의 채산성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남도내에서 시설하우스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농사짓기가 겁이 난다는 불만소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적자가 뻥뻥 터트리는 농사를 지겠는가.

농산물 가격의 부침은 농민들의 수익 차이를 넘어 국가 물가 관리에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농업용 면세유나 농자재 등 농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종자와 포장재 가격 등 농자재값도 10% 정도 올랐으며, 추위로 구인난을 겪으면서 인건비도 10% 가량 덩달아 뛰었다.

의료 칼럼



허준

요즘을 안과를 찾는 환자를 보다 보면 눈물이 줄줄 난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어떤 분들은 바람볼 때 심하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책을 보거나 컴퓨터작업을 하다가 눈물이 난다고들 한다. 다른 때보다도 특이하게 겨울철에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눈물은 우리 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한다. 기본 눈물은 우리 눈의 이물질을 세균을 씻어내고 평상시 눈을 부드럽게 갖는다. 뜰 수 있도록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눈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

겨울철 눈물주의보

역시 기본 눈물이 하는 일이다. 눈물이 많이 나는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건성안’이다. 건성안이란 눈물의 생성량이 부족하거나 금방 증발하게 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증상으로 눈이 건조하고, 이물감, 따가움, 눈물, 시야 흐림 등이 있다. 이 건성안은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눈꺼풀의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눈물의 원인이 건성안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다. 자기는 눈이 건조하지도 뻑뻑하지도 않고 눈물이 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건성안에서도 눈물이 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각막 및 결막을 덮고 있는 얇은 눈물막층의 불균형으로 인해 눈이 자극에 민감해지면서 반사적인 작용으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건성안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실내 온도를 낮추고 가습기 등의 사용으로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자주 깜빡여서 눈물의 증발을 막고 컴퓨터 작업이나 독서 등 눈에 피로를 요하는 작업을 하고난 후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해 눈의 긴장감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겨울철에 실외스포츠를 즐길 경우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외선 및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건성안의 증상완화를 위해 인공눈액을 안과에서 처방받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안과에 방문해 동반된 눈꺼풀 질환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증상의 정도 및 건성안의 심한 정도에 따라 인공눈물, 무방부제 인공눈물, 항염증 안약, 경구용 항생제, 자가혈청안약, 눈물점액쇄 등 치료가 다양한 안과를 방문해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눈물이 나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코눈물 관계증후군’이 있다. 이 질병은 눈 안쪽에 위치한 눈물점액샘을 통해 코쪽으로 통하는 눈물통로가 막혀 눈물이 눈에 고이거나 밖으로 흐르는 병이다.

흔히 고령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며 코눈물관의 잦은 염증으로 통로가 점점 좁아지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경우엔 수술을 권하며 정도에 따라 실리콘 튜브 삽입술이나 누낭비강동합술을 시행할 수 있다.

눈물을 흘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 모두 안과 외래에서 간단한 검사로 쉽게 진단될 수 있으며, 진단 후 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눈물이 난다면 꼭 안과 검사를 받기를 권유한다.

<이이안과 원장>

기고



박달호

요즘처럼 흑인이 계속되거나 다시 기온이 올라가는 등 기후변화가 심한 계절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져 심할한 질환, 뇌졸중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질환들은 심장과 폐 활동을 멈추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폐암이나 자살,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망률을 보이는 등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생명을 구하는 손이 되자

통계청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 해 2만여 명 이상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사망하고 약 2.5% 정도에 해당하는 500여 명만이 겨우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심장마비 환자 60% 이상이 가정에서, 24%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심정지환자를 목격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심폐 소생술을 배운 초등학교 5학년이 응급상황에서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아버지를 살린 사례처럼 응급상황에 대비 교육을 제대로 배우면 주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응급한 심정지환자는 초기 4분이 경과하면 뇌손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나라 119 구급대의 사고현황 도착률 5분 이내가 60% 이내이고 보면 사고를 목격한 주위 당사자가 제일 먼저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목적지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한국 1.4%, 미국 16%로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생률 또한 한국 2.4%, 일본 12%로서 선진국 등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운이 좋게 소생된 환자들도 다수가 중증 뇌손상의 후유증을 가진 상태로 생존하고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도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전략의 부 적절성 또는 불충분성이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번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기관 주요 도시마다 설치해야

인터넷게임 중독이 사회병폐화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걱정이 된다.

내가 신문에서 본 것만 해도 한 중학생이 게임을 그만하라고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5일 동안 밤새 게임을 하던 3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진 일도 있었다. 또한, 부모가 게임에 빠져 3개월 된 딸을 굶어 죽게 한 일도 있었고, 12월 22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게임중독에 걸린 젊은 주부가 두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게임중독에 빠지면 수면부족, 건강악화, 인간관계의 단절을 부른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혼동하게 돼 끔찍한 사건을 저지룰 수 있는데,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게임중독자의 뇌는 마약중독자의 뇌와 같다고 한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추측하기에는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은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 중독률은 어른의 두 배에 이른다. 중독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책이 당장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인터넷 게임중독을 치료할 전문치료기관을 각 시도의 주요 도시마다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초·중·고등학생 게임 중독자들을 불러 예방과 치료 교육을 해야 한다. 전문 치료상담사가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을 막을 예방법과 경각심을 키워주고 그 후해의 심각성을 일러줘야 한다. 흡연자들에게 담배의 해악을 설명해 주

위해 폐가 썩어들어가는 과정을 비디오로 만들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식으로 충격을 주는 것처럼,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뾰족한 치료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일전에 정부가 일정시간 이상 게임에 접속하면 아이템 혜택이 줄어드는 피로도 시스템과 본인 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한 적이 있다. 이 대책이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고 게임중독 원인의 하나인 PC방 출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게임은 한번 중독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게임 외에 다양한 여가나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재령·광주시 북구 생동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이 지난 11일 호텔 방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 사인이 약물중독으로 추정되는 결과 아름답지 못한 죽음이였다. 그녀는 생전 1억7000만장의 음반을 전세계에 팔았고, 그레미상을 6번 받았지만 말년에 약도 돈도 떨어져 주변에 “100달러만 빌려 달라”고 매달렸다고 한다.

20년 전 캐빈 코스터와 함께 한 영화 ‘보디가드’에서 보여준 흑진주 같은 자태는 온데 간데 없고 최근 할리우드에서 목격된 그녀는 노숙인의 꼴이었다. 결론 실패에 따른 약물이 그녀의 흑진주 같은 미모와 미성(美聲), 생의 의지를 잊어가고 말았다.

팝의 디바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을 때 이를 후인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테일스센터에서 열린 제54회 그레미 시상식에서는 새로운 ‘팝의 디바’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영국 토트넘 출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아델(23)이었다. 그녀는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등을 비롯해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와 최우수 팝보컬 앨범, 최우수 단편 뮤

지비디오 부문까지 6개 부문을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아델은 1년반 동안 사귀던 10세 연상의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극한의 슬픔과 원망, 체념과 응서의 드라마를 자신의 나이로 떠 ‘21’ 앨범 전체에 백곡이 담겨있다.

2011년 1월 세상에 나온 앨범 ‘21’은 그해 팝 시장을 통째로 삼켜버렸다.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원숙한 솔 보컬과 아름다운 악곡이 조화를 이룬 음반이란 찬사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그녀에 대해 복고술을 안박히 구현하면서 개성이 충만한 음색과 디바급 가창력, 작곡 능력까지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픔을 준 남친과의 이별을 후인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테일스센터에서 열린 제54회 그레미 시상식에서는 새로운 ‘팝의 디바’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영국 토트넘 출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아델(23)이었다. 그녀는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등을 비롯해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와 최우수 팝보컬 앨범, 최우수 단편 뮤



휘트니휴스턴과 아델

/최재호 경제부처장 lion@kwangju.co.kr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대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회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